

알츠하이머(Alzheimer): 기억과 존재, 그리고 사랑

영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김광영 (숭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논문초록

기억상실증이 가장 주요한 특징인 알츠하이머병은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같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현실가운데서도 일어난다. 본고는 현대 노인들의 가장 일반적이면서 심각한 알츠하이머병을 통한 기억상실의 문제를 서술하고 그것이 인간존재에 주는 영향과 의미들을 분석한다.

알츠하이머병은 다른 병과 달리 의식 속에서 자기의 과거를 지우므로 자아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나아가 환자가 있는 가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이것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길은 의료적 치료 외에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가족들의 변함없는 사랑임을 본 논문은 강조한다. 어찌면 영혼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그것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 사랑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랑을 성경적으로 고찰하면서 관계의 힘인 사랑을 통한 기억의 회복과 자기 정체성으로의 복귀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을 기초로 알츠하이머에 대한 사랑의 치유와 자기 정체성으로의 복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알츠하이머, 기억, 사랑, 기억상실증, 관계, 노인병, 코이노니아.

- I. 서론: 영화 속의 알츠하이머병
- II. 기억과 존재의 도둑, 알츠하이머병
- III. 기억과 인간의 정체성
- IV. 회복의 힘으로서의 사랑: 불가능의 가능성
- V. 결론: 에필로그 - 영적 알츠하이머병의 함의

I. 서론: 영화 속의 알츠하이머병

근년에 나온 몇 편의 영화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주인공들을 등장시키므로 이 질병으로 인한 가족 및 인간관계 문제와 삶의 아픔들을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나온 대표적인 세편을 택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심각성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내 머리 속의 지우개>¹⁾

최근에 나온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인간의 삶을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랑과 인간관계가 다뤄지지만 그 행간에는 기억과 존재라는 중요한 심리학적, 철학적 주제가 놓여 있다. 내용은 대강 이렇게 전개된다:

여자 주인공 수진은 한 편의점에서 건망증으로 인한 오해로 인해 운명적인 사랑 철수를 만난다. 결혼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도 잠시, 수진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는다. 수진은 두려움에 괴로워하며 철수에게 이렇

1) 2004년 11월에 개봉한 멜로영화로서 각색 김영하, 연출 이재한 감독, 제작 싸이더스사의 작품이다.

게 말한다. “기억이 사라지는데 행복은 무엇이고 또 사랑은 무엇이야, 다 잊어버릴 텐데……. 곧 나도 없어 질 거야 ……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수진의 기억은 사라졌고, 그녀는 철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급기야 남편에게 옛 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한 미소를 날리기까지 한다. 철수는 한탄하며 의사에게 묻는다: “제 두 눈을 바라보면서 옛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말했을 때, 도대체 진짜 사랑 한 건 누구니까?”



<그림 1> 영화포스터-내 머리 속의 지우개

비록 그녀의 영혼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철수는 수진이가 진짜 사랑한 건 누구냐고 물어 보았지만, 보다 중요한 질문은 수진이가 지금 누구냐는 것이다. 기억이 사라져 자기가 접하는 사람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마저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비록 외모는 그대로일 지라도 수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기억과 존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잠시 기억이 돌아온 틈을 타 수진은 철수에게서 떠나버리고, 가족은 철수를 배려하여 이혼을 종용한다. 하지만 철수는 끝까지 수진을 포기하지 않는다.

영화의 마지막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편의점에서 수진의 기억이 잠시 돌아오는 틈을 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영화는 끝이 났지만, 몇 시간 이내 다시 망각의 늪에 빠졌다가 결국엔 기억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2. <내일의 기억>²⁾

두 번째 영화는 2007년도에 나온 일본 영화로서 <내일의 기억>이다.



<그림 2> 영화포스터-내일의 기억

영화는 잘나가던 회사의 중견 간부 사에키 역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회사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사업 약속을 잊어버리

2) 2007년 5월에 개봉한 일본영화로서, 원제는 '明日の記憶'이고, 감독은 츠츠키 유키히코, 제작사는 도에이회사이다.

고, 직원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다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다. 처음엔 그동안 쌓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다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여기저기서 소일거리를 하지만 점점 초췌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남편대신 생계를 위해 일 나가는 아내 에미코를 의심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변해가고 파괴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은 소중한 기억들, 특히 가족과 아내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사에키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다가 예전 아내와 함께 방문했던 도자기 굽는 신숙으로 찾아간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내려오다가 아내를 만나지만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아내에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건넨다. “저는 사에키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제 이름은 에미코입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둘이 함께 산길을 걸어 내려오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난다. 역설적인 영화 제목처럼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 보다, 미래의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짙은 푸름을 간직한 산길에 함께 있는 두 부부의 모습은 삶은 계속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어웨이 프롬 허>(Away from Her)³⁾

캐나다 영화 <어웨이 프롬 허>(Away From Her) 역시 알츠하이머에 걸린 부부의 이야기이다. 그랜트와 피오나는 4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이다. 그런

3) 캐나다 여류작가 Alice Munro의 *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이라는 소설을 Sarah Polley가 연출하여 2006년에 나온 영화이다. 아카데미상은 수상하지 못했지만 많은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등 상을 받은 작품으로 1979년생의 20대 감독이 나이에 비해 매우 차분하고 담담하게 엮어간 영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개봉했다.

데 아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그녀는 자진해서 요양원에 들어간다. 요양원 규정상 한 달간 가족의 면회가 금지되었다. 한 달 후 아내를 찾아가 남편은 자신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오브리라는 새로운 남자와 사랑에 빠진 아내를 발견한다. 그랜트는 계속 요양원을 찾아가 과거의 추억이 묻어 있는 책을 읽어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에는 온통 남편보다 오브리에 대한 생각뿐이다. 그랜트는 그런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만 볼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사랑에 빠진 걸 방해하고 싶지 않다. 여지를 주고 싶다. 저 사람이 잘 지내도록 보고만 있을 거다.”



<그림3> 영화 포스터-어웨이 프롬 허

오브리가 본 집으로 돌아가 요양을 하자 피오니는 상실감에 침대에서 몇 주 동안이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랜트는 결국 오브리의 집을 찾아가 오브리를 다시 요양원으로 데려와 아내와 만나게 해주려 한다. 오브리들 아내의 방문 밖 잠시 기다리게 하고 그랜트는 문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말을 꺼내려 한

다. 순간 피오나는 그랜트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날 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랜트는 피오나를 꼭 껴안고 말한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장면과 더불어 영화는 끝나 버린다.

아무리 그랜트가 그녀를 사랑해도 질병은 더 심해질 것이며 기억과 의식이 점차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랜트는 그녀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피오나는 그랜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 까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편의 영화에 나타는 주인공들이 걸렸던 ‘알츠하이머’의 증세는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상상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질환의 실제 특징들이다. 모든 장면들이 감동적이고 이름답지만 영화의 끝 장면에서 가서도 돌과 구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이 얼마나 무섭고 불치의 병인지 영화들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소재로 한 영화를 텍스트삼아 이 질병과 그것의 특징인 기억의 소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아 정체성과 존재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이 질병이 가져오는 부가적인 가족 파괴의 힘을 같이 소개하면서, 이러한 질병을 이기는 힘은 사랑이라는 논지로 전개하고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영적 적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기억과 존재의 도둑, 알츠하이머병

1. 알츠하이머병의 개념과 기본 특성

영화들에서 당사자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이다. 이 병이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주

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가족에 대해, 심지어 자기에 대해 잊고 망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나이가 들면서 정신기능이 점점 쇠퇴해지는 ‘노인성 치매’를 일으키는 병으로, 독일의 신경과 의사이며 정신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Alois Alzheimer, 1864~1915)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신경질환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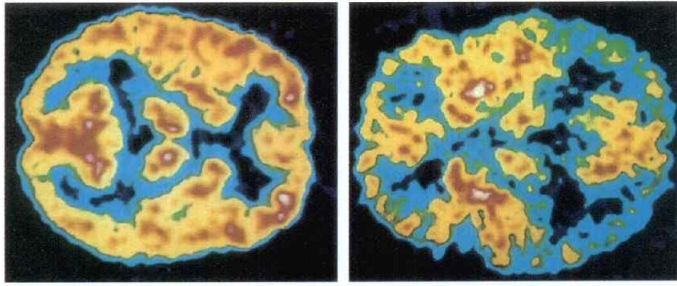
그는 “뇌피질에 나타난 특수 질환”이라는 논문⁵⁾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여성 환자에 대한 관찰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 환자는 질투심과 기억력 쇠퇴, 편집증, 지각력 저하, 몰이해, 인사불성 증세를 차례로 보인 뒤, 발병 4년 반 만에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전신마비로 침대 위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욕창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Nuland, 2003: 168)

그는 사망한 자의 뇌 조직을 현미경을 관찰하고 실험하여, 뇌피질 세포 속에 머리카락처럼 생긴 원섬유(fibrils)가 점차 밀집화 되어 가는 것을 밝혀내었다.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세포 전체가 와해되어 원섬유 덩치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 원섬유덩어리와 노화를 일으키는 미세물질들은 오늘날에도 알츠하이머 질환을 진단하는 표준척도로 사용되고 있다.(Nuland, 2003: 169)

아래 그림은 뇌의 PET 스캔 사진이다. 왼쪽은 정상노인, 오른쪽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것이다. 환자 쪽이 검게 나온 부분이 많은데, 그만큼 뇌가 손상되었다는 뜻이다.(허균, 1995: 65)

4) 이것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의 동료의사였던 Emil Kraepelin이었다. 그의 책 *Psychiatrie. Ein Lehrbuch für Studierende und Ärzte*. II. Band, *Klinische Psychiatrie*. Leipzig: (Verlag Johann Ambrosius Barth, 1910).

5) A. Alzheimer, “Beitraege zur Pathologischen Anatomie der Hirnrinde und zur Anatomischen Grundlage einiger Psychosen,” *Monatsschrift für Psychiatrie und Neurologie* 2 (1897). 알츠하이머는 이 논문 외에 많은 관련 논문들을 이후에도 내었다.



<그림 4> PET사진-정상적인 뇌 PET사진-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이 질환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끊임없이 계속된다. 발병에서 사망까지 통상 7-10년이 걸리나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3-4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14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미국인 중 11% 이상이 알츠하이머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65세 이하의 환자 수를 포함한다면 미국 전체의 환자 수는 6백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3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의 미국인 환자는 6천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Nuland, 2003: 157) 이 병은 인류의 고령화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병이지만 특히 아시아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9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알츠하이머병 유병률은 약 8%로 추정된다(이동우, 김기웅, 허윤석, 2009, 417). 이는 10년 전의 1.9명 내지 5.8명에 비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라고 할 수 있다.(이중복, 1999: 115) 이 알츠하이머병은 점진적 기억장애와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을 초래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이동우, 김기웅, 허윤석, 2009: 417).

이 질병에 대해 지난 수년 동안 급속히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의 치료 예방법은 물론, 정확한 발병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Nuland, 2003: 172). 알츠하이머박사가 첫 번째 증례를 보고한 지 100년

이 넘었지만, 알츠하이머병이 임상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1993년 tacrine을 시작으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일련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cholinesterase inhibitors, ChEI)들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NMDA 수용체 길항제인 memantine이 이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규명되지 않은 황산화제, 소염제, 호르몬대치요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나 memantine과 함께 혼용되고 있다(이동우, 김기용, 허윤석, 2009: 417)

2. 알츠하이머병의 제 증상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병이 아직 명명되기 훨씬 이전인 1838년 에스키롤은 이 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환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보고하고 있다.(Nuland 2003: 165)

그들에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다. 미움과 증오 역시 마찬가지다. 발병 전에 열렬히 사랑했던 대상에게조차 철저한 무관심을 보인다. 친척과 친지를 봐도 기쁨을 못 느끼고 그들과 헤어질 때도 섭섭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에겐 흥미나 관심이 없다. 기억이나 희망을 둘 수 없는 까닭에 삶의 변화 역시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에 철저하게 무관심한 그들에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잘 내는 그들은, 지적인 면에서도 제한된 기능만을 보인다. 분노를 쉽게 나타내는 만큼 쉽게 가라앉히기도 한다.

치매 증상에 빠진 환자들은 대부분 '우스꽝스런 버릇과 열정'을 보인다.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씩 없이 걷는 동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느리고 위태해 보이거나 끝까지 동작을 멈추려 하지 않으려 한다.(...)

감정표현이나 지적 기능의 마비 외에도 신체적 변화가 따른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동공이 확대된 눈은 멍하며, 항상 눈물로 촉촉이 젖어 있다. 확실치 않은 표정에 인상도 무덤덤해 보인다. 체중이 감소함에 따라 체격도 계속 줄어들는다. 마비 증세가 나타나면 치매의 정도는 점점 심해진다. 명확한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뒤로 보행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다른 질환과 달리 치매 환자는 자신의 이상 증세를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기에, 환자는 의지력이나 판단력 없이 뇌가 죽어가는 대로 이끌려간다.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은 인생의 퇴화적, 말기적 질병으로 난치병 가운데 하나로 노인성 치매의 병으로 치매가운데 가장 흔한 질병이다. 이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의 퇴화를 수반하는 뇌동맥 경화로서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주의 집중력의 결여, 계산능력과 언어사용 능력의 저하, 추상적 사고와 판단능력의 결여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며, 비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배회나 공격적 행동, 편집성향과 청결의식의 결여, 급격한 정서의 변화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개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모, 강수균, 장현갑, 2003: 158).

알츠하이머병은 특히 지성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람을 몰라보고 혼동하는 것과, 과민하고 공격적인 언행, 말의 어눌함 등의 특징을 보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 매우 약화된다. 노인들은 흔히 자신들의 기억이 예전과 다르다고 말한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 이름이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열쇠나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기억의 약화내지 퇴화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일 수 있다(박민, 2008: 925).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기억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상실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치명적인 기억의 상실은 과거에 대해 망각에 빠지므로 가족이나 주변인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인다.

한 마디로 보살피는 가족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이 질환

이다. 가족들은 환자에게 사랑과 미움의 이중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무력함과 덧없음을 절감하게 된다(Nuland, 2003: 159). 서서히 파괴되는 과정은 본인이 몰랐기에 다행스러운 정도로 처참한 것이다. 서위 B. 뉴랜드의 책에 소개된 환자 필 윌트닝의 경우 그의 사망 소식에 추악한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내는 무척 기뻐하였다고 한다(Nuland, 2003: 156). 이 질병이 얼마나 가족을 파괴하고,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질병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츠하이머환자가 직접 쓴 책인 『치매와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저자인 크리스틴 보든은 이 병을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의 책 제목(*Krankheit zum Tode*)(1849)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르며, 차라리 암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⁶⁾.

텍스트로 살펴보는 세 편의 영화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기억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에는 본인과 주변 모두 괴로워한다. 그러다가 기억의 정도가 심해지면, 기억이 사라진 사람은 알지 못하는 안개 속에 살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만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

III. 기억과 인간의 정체성

1. 기억의 존재로서의 인간

플라톤의 『*Theaitetos*』⁷⁾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

6) Christine Boden, *Who Will I be When I die?* 김동선역 『치매와 함께 떠나는 여행』(인터, 2005), 5장과 6장이 이런 내용으로 제목을 달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7) Platon, *Theaitetos*, 191c.

(Mnemosyne)가 인간에게 기억이란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 그것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그녀의 딸이자 예술의 여신인 뮤즈(Muse)의 산물들을 향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억은 이러한 맥락에서 말해지는 선율이나 시와 같은 것에 대한 것만 아니라 삶이나 역사의 모든 총체적인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란 기억 속에 전개되고 또 꾸러져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나 베르그송(Henri Bergson)같은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기억의 존재’이다.⁸⁾ 인간은 기억을 지니면서 자기되어지고,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기억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간다.

서양사상사에는 기억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표명되어 왔다. 플라톤이 참된 지식은 이성의 회상(回想, anamnesis)에서 나온다고 하였을 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기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기억은 능동적 이성(*nous poieitikos*)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이성(*nous pathetikos*)에 속하는 것으로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져 가는 것, 즉 ‘육체의 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단순한 정보 정도’로 인식하였다. ‘방법론적 회의론’을 개진한 데카르트(Descartes)에 의하면 기억이란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역시 회의의 대상이기도 하다.

기억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의 극단은 유물론에서 보인다. 유물론은 기억의 내용인 관념이나 이미지 같은 것은 외부의 사물이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내부의 물질인 뇌에 잠시 맺히는 영상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을 회상한 『고백록』(*De Confessione*)에서 기억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⁹⁾ 사실 그의 이 저서는 전적으로 그의 기억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이란 기억의 창고에 있는

8) Henri Bergson, *Matter and Memory* (1896),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9) Augustinus, *De Confessione*, 선한용역,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장과 10장을 참고하라.

것으로 기억이 없다면 인간은 완전한 무지 속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억의 힘은 이렇게 대단하고, 기억의 창고는 매우 넓으며, 또 기억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억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현재화시키며 그렇게 하므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작동한다(Kelly Jane Connolly, 1999).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을 통해서 자아를 새로이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고, 또한 자아를 현재와 미래를 향해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다.

한편 근, 현대 사상사에서 기억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베르그송에 의하면 기억이란 뇌에서 과거의 일들을 모아서 저장해 두는 게 아니다. 과거란 중단 없이 흘러가고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가는 것으로 현재와 연결되며 또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 그러므로 기억도 과거에서 현재로 언제나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에, 그런 기억의 흐름을 베르그송은 ‘순수 지속’ 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기억은 두뇌에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 두뇌와 상관없이 시간과 함께 발전한다(김진성, 1985: 165).

말하자면 순수기억은 기계적인 신경조직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억의 본질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이며 두뇌와 무관한 살아있고 지속하는 정신자체라는 것이다.¹⁰⁾

2. 기억의 시간적 지평

‘*Memento mori*’(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니면 ‘*Memento viveri*’(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옛 경구는 기억의 미래적 측면과 현재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memento*’는 본래적으로 ‘회상’이 아니라 ‘생각’일 것

10) Keith A. Pearson, *Philosophy and the Adventure of the Virtual: Bergson and the Time of Life* (London, 2002), 특히 제7장: “The Being of Memory and the the Time of Self”를 참조하라.

이다. 하여튼 이런 표현과 달리 기억이란 진행되고 있는 현재나 경험하지 아니한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다. 상기한 베르그송의 말을 빌리면 기억이란 현재나 미래와 떼어 놓여 있는 과거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의 보존여부와 상관없이 기억의 본래적 대상은 과거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거에의 기억은 현재에 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memoria*)속에 남은 과거를 ‘과거의 현재’라고 불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것을 기대(*expectatio*)하는 것이므로 미래도 ‘미래의 현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래도 현재와 연관되어 있지만 과거도 현재와의 연결 속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억인 것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흘러간 과거들은 현재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기억을 통한 과거의 일들은 현재에 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에 따라 수축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또 새로워지기도 한다. 말하자면 기억을 통해 현재의 지각과 접점을 갖고 있는 과거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에 맞추어지고, 또 현재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다

기억 속에서 현재로 불리어 내어진 과거는 현재에 대해 영향을 주고 또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와 결합되어 우리 삶의 총체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여 과거는 현재와 더불어 삶의 총체만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궤적은 결국 개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삶은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그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기억과 자아 정체성

어쩌면 베르그송의 말처럼 과거는 우리의 뇌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고 할지라도 그러한 과거가 개인의 의식에 있어 그의 현재와 연관되기 위해서는 두뇌 속의 기억과 결부되어야 한다. 물론 베르그송은 뇌와 독립해 있는 기억의 실재성을 말했지만 말이다. 문제는 현재와 결부하여 기억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망각이다. 망각은 개인의 의식 속에서 그의 과거의 상실을 의미하고, 이런 과거에의 상실은 존재의 상실, 자기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철학의 네 가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¹¹⁾ 이 물음은 중요하면서도 다른 세 가지 질문을 수렴하는 중심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이 물음은 보편적 인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서처럼 개별적 주체에 대한 물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자아 정체성의 문제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고, 인간 지성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 또는 망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정체성 문제요, 또 자기정체성에 대한 의식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베르그송의 논리에서 기억의 문제를 학문적 논의로 끌고 간 들뢰즈(G. Deleuze)는 이런 관점에서 "기억이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이름이다(G. Deleuze, 1988: 107)"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억을 상실하는 것 내지 망각은 의식 속에서의

11) 칸트가 처음 제기한 철학의 물음은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Was Kann Ich Wissen?)",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Was Soll Ich Tun?)",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것은 "내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Was Darf Ich Hoffen?)" 등이다.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1787), 최재희 역, 『순수이성비판』(서울:박영사), 1994, 555 (B833), 참조) 하지만 1800년에 출판된 『논리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Was ist Mensch?)"라는 네 번째 질문을 던지며, 위의 세 가지 질문들은 결국 이 마지막 질문에 수렴된다고 하였다. (I. Kant, *Logik, ein Handbuch zu Vorlesung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3], S. 448 참조하라. 이 세 가지 질문은 각기 형이상학, 윤리론, 종교론을 보여주고, 상기의 질문은 인간론을 보여준다.

과거와의 단절만 아니라 바로 자신과의 관계의 단절이 되는 것이다.

기억은 자기의 잊어버린 과거를 현재화시켜 주므로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 왔는지를 제시해주므로 그것의 무작동 또는 오작동은 자기 정체성의 혼동 내지는 그것에 대한 무감각을 가져다주므로 존재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은 이렇게 중요한 기억의 기능이 결정적으로 손상되었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분적인 육체적 질병 또는 정신적 질병에 해당하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매우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기억과 존재

그렇다면 기억이 사라지면 인간의 존재도 끝이 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억을 떠올리는 모든 행위는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든 언어나 다른 상징을 통해 이루어지든 모두 일정한 내러티브적인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억은 시간 즉, 과거의 것으로 지금의 시제로 현재화되는 것이며, 기억의 내용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배치로 구성되는 것이다(박성수, 2004: 115).

브리태니카(Britannica) 사전에서는 '기억'(memor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과거의 경험을 인간의 정신 속에 간직하고 되살리는 것. 기억하는 기능과 그 반대인 망각하는 기능은 보통 적응성이 있다. 기억이 없다면 학습·사고·추론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망각은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기억의 특성 때문에 시간 개념을 얻을 수 있고, 낡은 학습 형태를 잃어버리거나 억제하여 새로운 학습에 적응할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경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¹²⁾

그러면 기억이 사라지면 인간의 존재, 정체성도 사라지는가? 강봉균은 “해마가 손상돼 서술 기억을 잃어버려도 우리 자신의 모든 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같은 병으로 암묵 기억까지 손실되면 우리 개성까지도 파괴되고 만다.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삶을 형성하는 모든 것이다. 즉 나는 내가 기억하는 나로서의 나이다.”고 주장한다.(강봉균, 2005) 기억이 사라지면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학계의 위 주장에 비해 철학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한다. 류종렬은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살면서, 신체와 더불어 기억의 회로가 무한히 반복되며 확장된다. 이 회로들은 경험에 의해 축적되고 지속하여 이루어진다. 이 회로의 총체가 물질성인 신체와 연관하여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했다.(류종렬, 2007: 386) 그러나 이어서, “자아 정체성은 과거의 기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하여 여전히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열려 있는 것이다”(류종렬, 2007: 386). 질환으로 인해 이전의 기억이 없어지지만, 그 이후 새롭게 형성되는 기억 역시 그 사람의 기억이며 그 사람의 존재이며 정체성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늙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괴테(Goethe)가 <파우스트(*Faust*)>를 완성한 것은 70세를 넘어서였고, 베르디(Verdi)가 오페라 <오텔로>를 작곡한 것은 73세 때였으며, 피카소도 90이 넘어서도 걸작을 많이 그렸다. 뇌의 노화는 정신기능 감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메커니즘들이 있어서 미지의 기능들은 계속 상승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허균, 1995: 68).

12) Britannica Online Dictionary, "Memory(Psychology)" 항목에 이런 설명 외에 다양한 현상들을 예시하고 하고 있다.

IV. 회복의 힘으로서의 사랑: 불가능의 가능성

1. 사랑의 대응

서위 B. 뉴랜드는 알츠하이머에 대한 글에서 “모든 것이 파국을 향해 달려 나가는 동안, 어둡고 괴로운 계곡에 빠져 허덕일 환자를 돕기 위해, 그를 사랑했던 가족과 친지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알츠하이머 질환은 자연의 상례를 벗어나 인간성에 도전장을 내민 극악무도한 질병이다. 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인간의 사랑의 충의가 육체적인 부패와 눈물로 얼룩진 영혼을 달래고도 남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 아닐까?”(Nuland, 2003: 175) 이라는 글로 마무리 한다. 사랑의 힘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질환으로 인한 고통조차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에서 알츠하이머로 두려워하는 수진에게 철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 기억이고, 내가 네 마음이야.” 모습이 변해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이다. 철수는 그의 약속대로 끝까지 수진을 지켜주며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수진은 행복할 수 있다. 수진의 기억이 사라져도 수진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철수가 있기에 수진은 수진이가 될 수 있다. 알츠하이머를, 그리고 이 질환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문제에 대한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영화 <내일의 기억>에서도 나타난다. 결국 사에키는 기억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위기에 처해 졌지만, 에미코의 사랑의 힘으로 사에키는 계속 사에키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옛 기억을 다 잃어버린 사에키를 받아주고, 이제 또 다시 내일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에미코가 있기에 사에키는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웨이 프롬 허>는 우선 기억을 잃어가는 피오나의 모습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 자기를 점차 잊어가며 다른 남자에게 의지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그랜트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에 술하게 등장하는 ‘삶이란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라는 대사처럼 알츠하이머병으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하는 삶의 무거움을 그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눈물겨운 헌신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다.

2. 사랑의 치료

이렇게 볼 때 알츠하이머병을 소재로 한 영화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랑을 통한 대응과 해결책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질병과 달리 알츠하이머병은 특히 관계 속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더불어 사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기억의 상실을 통한 망각의 아픔을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누구인지,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잊어버릴 뿐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말하자면 관계적 질병이라는 데에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러한 관계는 부버(Martin Buber)¹³⁾등이 말하는 것처럼 ‘나와 그것’(Ich-es)이라는 비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Ich und Du)라는 인격적 관계이다.

인격적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상호간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가운데 한쪽이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하지 못하고 바른 관계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의 헌신과 인내가 요구된다. 특히 영화들에서 나타난 바대로 사랑하던 관계에서 그 사랑의 대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일층 다른

13) Martin Buber, *Ich und Du* (1923), in *Das Dialogische Prinzip* 4. Aufl. (Heidelberg: Verlag Lambert Schneider, 1979).

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적에는 상대에게는 고도의 인내와 특별한 사랑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유비적인 (*analogia*)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서로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필리아(*philia*)가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agape*)적 사랑이다. 말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흉내 내는 사랑이다.

영화들에는 이러한 인간 편에서의 아가페 적 사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가페 적 사랑에 도저히 비할 수 없고 많이 부족하고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아가페 적 사랑이 보이는 것이다. 이 사랑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랑하는 이에게 상대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에 머물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치료법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랑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치료법이다. 니버(Reinhold Niebuhr)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최종적인 그리고 최상의 가능성이 다”(Love is the final and highest possibility in man's relationship to man)라고 하였다(Niebuhr, 1957: 12).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랑은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능성(simple possibility)'이라고 하였다.(Niebuhr, 1957: 11)

사랑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들의 두뇌에 주는 화학적이고 실질적인 긍정적 작용의 실증문제는 의학의 영역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고찰 할 때는 사랑이야말로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응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여 그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므로 관계가 다시 형성되기도 하지만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다.¹⁴⁾

14) 예컨대 검색사이트 Google에서 'Alzheimer'와 'Love'를 동시에 검색해 보면 알츠하이머병과 그것의 치료 및 대응을 다루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나타나고,

사랑은 대부분의 상처 난 마음이나 메마른 영혼의 치료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라면 영화에서 보듯이 적어도 사랑이란 힘이 이러한 질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심리치료법으로 사랑을 강조한 연구물이나 보고서들이 갈수록 양산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¹⁵⁾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을 영적 세계에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적용을 통하여 이 질병에 대한 바른 대응이 무엇인지 유비적으로 알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에필로그- 영적 알츠하이머병의 함의

1. 기억에의 신적 명령

우선 성경을 보면 '기억'에 대한 매우 빈번하고 강한 강조가 나옴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리

그 모든 것들은 한결같은 사랑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 예를 들면 Cecil Murphy, *Day to Day: Spiritual Help When Someone You Love Has Alzheimer'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8); Rita Bresnahan, *Walking One Another Home: Moments of Grace and Possibility in the Midst of Alzheimer's*, (2003); Olivos Hoblitzelle, *The Majesty of Your Loving: A Couple's Journey Through Alzheimer's* (Green Mountain Book 2008); Harald G. Koenig, *Caring for a Loved One With Alzheimer's Disease: A Christian Perspective* (Routledge 2000); Mary Summer Rain, *Love Never Sleeps: Living at Home with Alzheimer's* (Hampton Roads Pub.Co., 2002); Robert F. Dehaan, *Into the Shadow: A Journey of Faith and Love into Alzheimer's* (1998); David Klck, *Forgetting Whose We Are: Alzheimer's Disease and the Love of God* (Abingdon Press, 1996); Laurie Zurinsky, *God's Heart-Your Hand: This One's For You, Caregivers* (Xulon Press, 2004).

고 하나님 자신도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다. 노아홍수 이후에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지라(창세기 9:15).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로 있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위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다.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나라(신명기 16:12).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백성들은 40년 광야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삶으로 그들을 깨달았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역시 기억의 중요성을 권면하신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신명기 24:18).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레위기 26:42).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에레미아 26:45).”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억’을 강조하신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여호수아 1:13).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자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신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셨던 것이다.

2. 영적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다. 자신이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자녀인지를 망각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하는 백성들인지 잊어버렸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억상실증(*Amnesia*)에 걸려 버렸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사사기 8:34).

마치 알츠하이머병처럼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웨이 프롬 허>에서 자기 남편을 남으로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자기 신으로 착각하며 그들에게 경배하며 배도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알츠하이머와 차이점이 있다면, 환자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린데 비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웃시야 왕 시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는 입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 하도다(이사야 1:3)’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버렸도다’라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로 몰라보며 기억상실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천지와 산천초목을 향해 절규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옛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를 보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게 된다. 어찌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 사랑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닐지 모른다.¹⁶⁾

3. 하나님의 아가페적 치유

이렇게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 하셨을까? 자기 의지로는 어쩔 수 없이 망각에 빠진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여전히 의식이 있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향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셨다.

하지만 그 망각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다. 아니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다. 기억을 상실한 자들에 대한 사랑

16)Michael Griffiths, *Cinderella with Amnesia: A Restatement in Contemporary Terms of the Biblical Doctrine of the Church*,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IVP, 1992). 저자는 이 글에서 현대교회의 모습을 구약 이스라엘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의 뜨거움은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이다. 금방이라도 벌을 주고, 내던져 버리고, 포기해버릴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호세아 2:19-20).

프랑스의 개신교 철학자요 해석학자인 폴 리콴르(Paul Ricoeur)는 『기억, 역사, 망각』에서 악과 범죄에 대한 용서와 사면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역설하였다(최태연, 2006).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다. 하나님은 배도하고 결길로 간 자기 백성들에 대해 인내하시고 그들이 자기에 대해 기억하고 언젠가 돌아오기를 오래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영적 알츠하이머에 대한 신적 태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와 사랑이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의 힘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그들을 다시 품어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망각의 병에 든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화해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을 영적 알츠하이머병에서 벗어나 깨어나게 하시고 자신을 주님과 주인으로 아버지와 영적 남편으로 알아 보게 하며 사랑하게 하셨던 것이다. 여기에 알츠하이머병과 그것의 치료에 대한 성경적 함의들이 숨어있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상실을 통한 자아정체성 및 존재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픔에 대한 바른 대응과 이러한 이픔을 지닌 자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일까? 영적 알츠하이머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의 무한한 아가페적 사랑이었다. 그런 사랑을 통해 망각의 깊은 늪에 빠진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신앙이란, 그리고 은혜란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가운데 녹는 것일 것이다. 이런 ‘사랑가운데서의 녹음’이 기억을 회복시키고, 그로 인해 자아 정체성을 찾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바른 망각의 치유법,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명약이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심리치료와 관계치료의 비법은 헌신적인 사랑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불가능의 가능(impossible possibility)’이다(Niebuhr, 1957: 11).¹⁷⁾

참고문헌

- 강봉균 (2005),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 - 내 머리 속의 연필과 지우개,” 『과학 동아』, 5 (233). 40-45
- 김정모·강수균·장현갑 (2003), “알츠하이머 치매의 심리치료,” 『정서, 행동장애 연구』, 19(4). 157-81.
- 김진성(1985), 『베르그송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류종렬(2007), “자아의 근원과 정체성에 관한 고찰 - 베르그송, 현대생리학, 인공지능에서-,” 『시대와 철학』, 8(2), 363-394.
- 박민 (2008), “노인의 기억재활: 이론적 개관,” 『한국 노년학』, 28(4), 한국노년학회, 925-40.
- 이동우·김기웅·허윤석 (2009),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근거중심 처방,” 『대한 의사 협회지』, 52 (4). 395-404.
- 이석규 (2007), “기억의 종교철학적 영향사와 그 의미연구,” 『현상과 인식』, 9 (102). 143-69.

17)Reinhold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Seabury Press, 1979) 참고하라.

- 이석우 (1980),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체계1”, 『신학지남』, 187, 121-40.
- 이종복 (1999), “치매노인 사례를 통한 케어(Care) 방법”, 『논문집』, 13. 평택대학교, 113-28.
- 박성수 (2004), “기억과 정체성”, 『문화과학』, 40, 111-25.
- 최태연 (2006), “폴 리콥르의 후기 역사철학 – 기억과 망각의 긴장 속에서 용서를 향하여”, 『해석학연구』, 17, 33-50.
- 허 균 (1995), “알츠하이머병, 마음도 늙는다”, 『과학 동아』, 2, 64-68.
- Alzheimer, A. (1897), “Beiträge zur pathologischen Anatomie der Hirnrinde und zur anatomischen Grundlage einiger Psychosen”, *Monatsschrift für Psychiatrie und Neurologie* 2.
- Augustinus (2003), *De Confessione*, 선한용역,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대한기독교서회.
- Brunner Emil (2002),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trans. by Harald Knight, Lutterworth Press.
- Christine Boden (2005), *Who will I be when I die?*, 김동선 역, 『치매와 함께 떠나는 여행』, 인터.
- Henri Bergson (2005), *Matière et mémoire*, 1896, 『물질과 기억』, 박종원 역, 아카넷.
- Kant I. (1787), *Kritik der reinen Vernunft*, 최재희 역, 『순수이성비판』, 서울: 박영사, 1994.
- ____ (1800), *Logik, ein Handbuch zu Vorlesung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3.
- Keith A. Pearson(2002), *Philosophy and the Adventure of the Virtual: Bergson and the Time of Life*, London.
- Kelly Jane Connelly (1999), *Memory in St. Augustine's "Confessions"* (January 1, 1999). Boston College Dissertations and Theses.
- Kraepelin Emil (1910), *Psychiatrie. II. Band, Klinische Psychiatrie. Ein Lehrbuch für Studierende und Ärzte*, Verlag Johann Ambrosius Barth,

Leipzig.

Louisville, Robertson (ed.) (1957), *Love and Justice: Selection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Michael Griffiths (1992), *Cinderella with Amnesia: A Restatement in Contemporary Terms of the Biblical Doctrine of the Church*, 『기억 상실 증에 걸린 교회』, IVP.

Niebuhr Reinhold (1979),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Seabury Press.

Nuland S. B. (2003), *How We Die*, 명희진 역,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서울: 세종서적.

Abstract

Alzheimer: Memory, Being, and Love

Kwang Young Kim(Soongsil University)

Alzheimer's disease, an incurable, degenerative, and terminal disease, which was first described by German psychiatrist and neuropathologist Alois Alzheimer in 1906~7 and was named after him, is the most common form of dementia, occurred not only in dramas as <An Eraser in My Brain>, but also in reality.

This disease has many symptoms as confusion, irritability, aggression, mood swings, language breakdown, and the general withdrawal of the sufferer as their senses decline. The most commonly recognised symptom, however,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s, is memory loss. Long-term memory loss erases the past of the patients in their brains and then breaks down their identities.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important method of conquering the disease is loving, besides medical treatments. Loving is the best way to cure the Alzheimer's disease. Finally, with the biblic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of God with Israelites in Bible, we arriv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atients can be cured and found their identities through enduring loving with members of their family as well as communities of love

as church.

Key words: Alzheimer, Memory, Love, Memory Loss,
Relationship, Koinonia